

2018 평창
동계올림픽·페럴림픽을
프랑스어로 경험하세요!



사진: Joshua Reddekopp 에 Unsplash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 스포츠 행사이며, 올림픽 헌장은 프랑스어와 영어, 이 두 개의 언어를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공식 외국어로 선정하고 있으니, 두 대회는 모두에게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 존중이라는 귀중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프랑스어권 국제 기구 프랑코포니는 다양성 존중이 인간의 기본권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프랑코포니는 올림픽 대회 시작 전과 대회 중에 참가 선수, 스포츠 관계자, 기자 및 일반 관중에 대한 언어 지원을 확대하고자 2004년부터 국제 올림픽 위원회 및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공조해왔다.

이 언어 지원 서비스는 프랑스어로 올림픽 대회를 만끽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이제 이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다!

알고 계셨나요?

프랑코포니란...

- 5대륙 84개국 및 정부.
- 2억7천4백만 명의 프랑스어 구사자, 10억 명의 주민, 2억4천5백만 명의 젊은이들, 국민총소득의 14%, 전세계 상품 교역의 20%
- 국제 기구 프랑코포니(OIF), 정부 차원의 두 개의 상설 협의회(청소년과 스포츠, 교육), 4개의 운영 기관(프랑코포니 대학 에이전시, TV5 몽드, 프랑코포니 국제 시장 협회, 생고르 대학) 그리고 프랑코포니 의원 총회
- 주요 임무
 - 프랑스어와 문화 및 언어 다양성의 신장
 -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및 인권의 신장
 - 교육, 연수, 고등교육 및 연구 지원
 - 지속 발전을 위한 협력 확대

대한민국은 프랑스어권이예요!

- 2016년 11월 마다가스카르에서 개최된 16차 플라코포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세계 10위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이 프랑코포니에 옵서버 회원국 자격으로 합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프랑코포니의 84개국 및 정부의 일원이며, 프랑코포니에 합류한 일곱 번째 아시아 나라입니다. 한국은 프랑코포니와 기관 차원의 관계를 맺은 동북 아시아 첫 번째 국가이기도 합니다.
- 한국에서는 40000만 명의 한국인이
- 50개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 한국에는 38명의 프랑스어권 대사관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불어권 대사들로 구성된 한국 프랑코포니 진흥 위원회(CFPC)가 2015년 12월에 발족했습니다.
- 프랑코포니의 날 축제가 한국에서 거행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 30개 이상의 불어권 대표단, 즉 900여명의 선수 및 관계자들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합니다.

외교단과 올림픽 프랑코포니의 무대 뒤에서의 활동

이 언어 지원 서비스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CIO), 올림픽 조직위원회(COJOP), 프랑스어권 국제 기구 프랑코포니(OIF), 한국 프랑코포니 진흥 위원회(CFPC), 브뤼셀 왈롱 정부, 프랑스 정부, 퀘벡 정부, 프랑스 퀘벡 청소년 사무실(LQJIQ와 OFQJ), 국가 올림픽 위원회 프랑코포니 협회(AFCNO) 사이의 긴밀한 공조의 결과이다.

프랑스어권 국제 기구 프랑코포니의 여덟 번째 증인 플뢰르 펠르랭

2017년 1월 18일 미카엘 장 프랑코포니 사무총장은 전 프랑스 장관 플뢰르 펠르랭에게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프랑코포니 업무를 공식 일임했다.

플뢰르 펠르랭은 CIO 및 COJOP의 고위관계자, 그리고 프랑코포니의 회원 국가 및 정부 대표자들과 교류를 맺었고, 올림픽 대회 개최 전에 교섭회의를 주도하여, 평창에서 예상되는 언어 서비스 수준을 파악했다.

그 일환으로, 2017년 3월 13일 주한 프랑스대사관저에서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에서의 프랑스어의 사용증진과 프랑코포니의 확장을 위해 마련됐다

펠르랭은 올림픽 대회 기간 중, 프랑코포니 사무총장과 방한하여 참가 선수, 스포츠 관계자, 기자 및 일반 관중에 대한 프랑스어 언어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며, 프랑스 가수 비아네의 콘서트 및 2017년 아비장 프랑코포니 대회 수상자 모임과 같은 프랑스어권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문화 행사를 함께 할 것이다. 펠르랭에 앞서 에르베 부르주(2004년 아테네), 리즈 비소네트(2006년 토리노), 장 피에르 라파랭(2008년 베이징), 파스칼 쿠슈팽(2010년 밴쿠버), 미카엘 장(2012년 런던), 엘렌 카레르 당코스(2014년 소치), 마뉴 디방고(2016년 리오) 등이 동일한 소명을 맡아 활약했다.

한국 프랑코포니 진흥 위원회(CFPC)

2015년 12월 14일 프랑스대사관에서 발족한 한국 프랑코포니 진흥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프랑스어권 대사들로 구성된다. 2016년 벨기에 대사, 2017년 캐나다 대사 그리고 2018년 모로코 대사가 차례로 주관하고 있는 한국 프랑코포니 진흥 위원회는 한국에서의 프랑코포니 발전을 위한 정책 노선을 확정하며, 프랑스 대사는 위원회의 사무국 업무를 담당한다.

올림픽 경기를 일환으로 진행되는 각종 단체활동만이 아니라 한국 프랑코포니의 날 축제에도 적극 참여하는 한국 프랑코포니 진흥 위원회는, 플뢰르 펠르랭과 프랑스어권 국제 기구 프랑코포니(OIF)의 한국 방문의 원만한 진행과 국제 올림픽 위원회 및 올림픽 조직위원회와의 교섭을 지속적으로 후원했다. 한국 프랑코포니 진흥 위원회는 이미 견고히 자리잡은 하노이, 도쿄, 방콕 및 자카르타 등의 지역 네트워크와 합류한다. 외교관 연합 단체인 이 조직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프랑스어 및 다중 언어와 문화다양성을 위한 프랑코포니 지역 사무국의 활동과 관련하여 매우 소중한 중계소 역할을 한다.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아시아 태평양의 협력 및 결정 기구에서 프랑스어의 보급 증진을 위한 활동이 지속되기를 프랑코포니(OIF)는 바란다. 향후 세 번에 걸쳐 올림픽 경기가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될 것이므로(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동북아시아 스포츠 분야에서의 프랑코포니의 활동은 지속될 것이다.

국가올림픽 위원회의 프랑스어권 협회(AFCNO)

국가올림픽 위원회의 프랑스어권 협회가 창설된 2010년 이후, 협회의 파트너 역할을 해온 프랑코포니는, 2년 전부터 프랑스어권 트레이너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올림픽 및 스포츠 위원회(CNOSF), 국제 올림픽



미카엘 장과 접견 중인 플뢰르 펠르랭(상단 사진).



2017년 6월 15일 국제 올림픽 위원장토마스 바흐와 면담 중인 플뢰르 펠르랭 (하단 사진)

위원회(CIO)와 함께 발전해 온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프랑스어권 트레이너 양성 및 스포츠, 전문평가, 기록 담당 국립 연구소(INSEP) 육성에 있다. 2017년 프랑스어권 국가 23개국, 13개 종목에서 선발된 24명의 스포츠 트레이너가 선수의 훈련 계획 작성과 부상 예방, 조화로운 발전 및 도핑 방지 등에 관련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주일간 프랑스의 INSEP 연구소

에서 회합을 가졌다.

평창 동계올림픽·페럴림픽(COJOP) 조직위원장 이희범과 접견 중인 플뢰르 펠르랭



2017년 플뢰르 펠르랭의 두 번째 한국방문. 한국 프랑코포니 진흥 위원회의 대사 회원들과의 만남.





2017년에 선발되어 국가올림픽 위원회의 프랑스어권 협회(AFCNO)의 초대로 프랑스의 INSEP 연구소에 모인 24명의 불어권 스포츠 트레이너들과 플뢰르 펠리랭

평창에서의 일상

프랑스어를 사용하세요.

- 선수들의 기자회견과 사절단장들의 회의에는 한국과 외국 국적의 동시통역 혹은 순차 통역을 맡은 전문 통번역가들이 있습니다. 통번역가들 가운데 십여 명은, 국제 기구 프랑코포니가 주관한 국제대회 리셉션 연수를 파리에서 받았습니다.
-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1142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일반인을 위해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모든 장소에 배치됩니다.
- 프랑코포니는 강릉 및 평창의 올림픽 선수촌에 사절단장과 대표단 및 선수들을 위해 벨기에, 퀘벡, 프랑스 국적의 8명의 자원봉사 언어 조정관을 배치합니다.
- 다중언어가 사용되는 구역과 도핑검사소에 자원봉사 통역사들이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양호실에도 배치됩니다.
- 1588-5644로 연락하시면 24시간 프랑스어(4번) 및 10개의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프랑스어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위해 프랑코포니가 배치한 젊은 프랑스국적 자원 봉사자가 불어로 번역하고 보충 설명한 2018 평창 올림픽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프랑코포니 특유의 주제들이 정기적으로 게재됩니다.
- 프랑스어로 된 관람자 가이드 북 평창 2018을 참조하세요. pyeongchang2018.com/fr/spectator-guide
- 팜플렛 "2018년 2월에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하실 건가요?"를 참조하세요. 예의 주시할 만한 한국선수 관련 정보, 경기 스케줄, 올림픽 경기장 주변 가볼 만한 장소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fm.pyeongchang2018.com/sfu.jsp?u=6j5Xra-rAuWZNFfAk4K9oWH3

- 한국 일간지 중앙일보가 게재하는 올림픽촌 뉴스를 우리의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프랑코폰"이란 제하로 정기적으로 불어로 번역해서 올립니다.
- 뉴스, 중간보도, 도핑 방지 검사 가이드 북, 화물 및 세관 가이드, 사절단 가이드 및 매뉴얼, 올림픽 가족 가이드, 관람객 가이드 등과 같은 불어로 작성된 기존 공식 문건들을 참조하세요.
- 프랑스어권 국제 기구 프랑코포니 인터넷 사이트의 올림픽 관련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francophonie.org/pyeongchang2018
- 프랑코폰 잡지 francsjeux.com
- 프랑코포니가 세네갈, 베트남, 캄보디아, 뉴벨칼레도니아에서 채용한 젊은 불어권 리포터들이 올린 기사들을 참조하세요. 그들이 경기장 곳곳을 누비며 수집한 정보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어로 소통하며 이동하고, 프랑스어로 올림픽 경기를 체험하세요.

- 모든 도착지(공항, 역)와 올림픽촌, 중심가, 경기장 근처 및 지정호텔 등에 3개 국어(한국어, 영어, 프랑스어)로 된 안내표지가 있어 여러분의 길 안내를 도울 것입니다.
- 올림픽 공식 행사와 경기 중에 프랑스어 안내 방송이 있습니다.
- 프랑스어로 된 GoPyeongChang 앱이 있습니다.
- 프랑스어로 올림픽 경기를 축하하세요
- 평창의 옹평 리조트에 대부분 자리를 잡은 캐나다, 스위스, 프랑스, 모나코, 오스트리아 올림픽 하우스에서 프랑스어로 즐기세요.
- 프랑스 가수 비아네와 아비장 프랑코포니 대회 수상자이자 콩고 가수인 파니 파야의 콘서트가 열리는 프랑코포니 문화행사에 참석하세요. 아비장 프랑코포니 대회 은상 수상자인 말리 출신 아부바카 다블레의 디지털 작품을 보러 오세요.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프랑스어권 국제 기구 프랑코포니)

Direction « Langue française, culture et diversités », 19-21 avenue Bosquet, 75007 Paris (France) • Phone : (33) 1 44 37 33 00

francophonie.org • @OIFfrancophonie (Twitter, Facebook, Instagram)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담당 사무국

202, E4B, 6 rue Dang Van Ngu, Hanoi (Vietnam) • Phone : (84 24) 35 73 52 45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의 한국 프랑코포니

francophonie.or.kr • facebook.com/francophonie.coree

francophonie.or.kr/le-conseil-de-promotion-de-la-francophonie-en-coree